

구한말 제주 지식인 心齋 金錫翼의 시문학 考

김 새미오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I. 머리말

II. 심재 김석익의 문학관

III. 심재 김석익 시문학 양상

1. 제주 지식인에 대한 기억

2. 함경도 유람과 역사회고

IV. 맺음말

<국문 요약>

본고는 구한말 제주지식인 심재 김석익(1885-1956)의 시문학을 분석한 논문이다. 심재는 제주도에 태어났고, 전라도 장성에 있는 부해 안병택을 찾아가 배웠으며, 함경도지역은 물론 일본까지 왕래한 바 있다. 이런 삶의 역정은 이전 제주도 문인들에게서는 찾아보기 힘든 모습이며, 그의 문학에는 이런 그의 삶이 그대로 녹아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심재의 문학관에서는 첫째, 작가의 처신과 문학의 관계에서 작가의 문제에 보다 주목했다는 점, 둘째, 중국시와 한국시를 분리해서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확인했다. 중국시에 대해서 심재는 한시의 형성과정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았고, 한국시에 대해서는 인물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이는 비록 나라가 망했지만, 조선이 문화적으로 훌륭한 나라였음을 후세에 전하려는 의도였다. 또한 제주 문학에 관한 많은 자료들로 심재의 문학적 가치를 짐작할 수 있었다.

심재의 시문학은 “돌아봄”으로 정리할 수 있고, 본고에서는 이를 사람과 공간의 두 가지 축으로 살펴보았다. 심재가 집중한 인물은 일제강점기라는 민족적 수난기에도 자신만의 지조를 지키며 항일운동에 매진했던 인물군이었다. 이는 그의 문학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었다. 심재는 함경도 지역을 다니면서 자신의 감정을 풀어내었다. 그가 함경도까지 유람할 수 있었던 것은 일제강점기가 되면서, 제주도가 폐쇄적인 공간에서 열린 공간으로 변화했기 때문이었다.

그의 시에 드러나는 주제적 양상은 항일의지로 집약할 수 있었다. 이는 ‘송사 기우만-부해 안병택’으로 이어지는 노사학맥의 항일의식을 계승한 측면이 있다. 이런 그의 모습은 시대의 지식인으로서의 모습도 읽을 수 있었다.

주제어: 심재 김석익, 부해 안병택, 제주도, 함경도.

I. 머리말

心齋 金錫翼(1885-1957)은 ‘조선-일제강점기-해방기’의 역동기를 살다간 제주도의 인물이었다. 어려서 할아버지에게 배우다가 제주에 유배왔던 李容鎬(1841-1905)에게 수학하였고, 다시 광주에 있던 浮海 安秉宅(1861-1936)을 찾아가 배웠다. 이후 심재는 ‘蘆沙 奇正鎭-松沙 奇宇萬-浮海 安秉宅’의 정신을 계승하는 인물로 성장한다. 그러던 심재의 삶은 1909년 제주무장항쟁을 계기로 바뀌게 된다. 이때 심재는 기우만의 격서를 전하면서 이 사건에 깊이 관여하였고, 그의 형인 金錫允도 이 항쟁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이다. 거사가 실패로 돌아가자 심재는 집필에 매진하며 제주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을 기록하였다. 그의 문집인 『心齋集』은 집안에서 대대로 전해지다가, 1990년 杓文會의 주관으로 편집되어 제주문화사에서 출간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심재집』은 제주에 관한 많은 사항을 정리하여 제주학을 연구하려는 사람들이 필수적으로 읽어야할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 하지만 아쉽게도 그에 관한 연구는 결음마상태라고 할 수 있다. 심재에 관해서는 신문지상에서 단편적으로 소개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다가 조금씩 번역작업이 진행되었다. 먼저 1979년에 김계연은 『탐라기년』을 번역하여 소개한 바 있다. 이 책은 제주도교육위원회에서 출간했는데, 『耽羅文獻集』이란 제목 아래 『남사록』과 『남명소승』을 함께 번역한 바 있다. 2011년에는 오문복 등이 『심재집』의 일부를 번역하여 『제주속의 탐라』라는 제목으로 출간한 바 있다. 이 책에서는 「탐라기년부록」, 「과한록」, 「탐라인물록」을 번역하여 대중에게 소개하였다. 2015년에는 제주문화원에서 홍기표 등의 공동작업으로 『탐라기년』을 다시 번역하여 출간되었다. 이 책은 기존의 번역서를 추가 보완하였고, 동시에 『탐라기년』의 내용이 실증적인 역사적 사실에 근거했음을 밝히고자 하였다. 지금까지의 번역은 제주에 관한 일부분을 편역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¹⁾

심재에 대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2004년 7월에 국립제주박물관에서 심재선생의 후손의 유물을 기증하면서 “구한말 한 지식인의 일생”이란 제목으로 전시를 기획하게 되었다. 전시도록의 말미에 오문복의 “심재선생을 기리며”라는 글과 김동전의 “심재 김석익의 역사저술과 역사인식”이라는 글이 실려 있다. 이 두 글은 그 동안 조금씩 관심을 끌던 심재라는 존재를 학계에 공식적으로 알렸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이를 바탕으로 김새미오가 『심재집』의 전반적인 사항을 정리한 바 있다. 이 글은 심재의 생애를 집중적으로 추적하면서, 『심재집』에 보이는 저술의 식등을 살펴보았다. 이 논문에서는 『심재집』의 저술의식으로 “조선유민 의식”과 “제주기록에 집중”했던 양상 집중하였고, 그 성격을 “돌아봄”으로 정리하였다. 이 논문은 기본적으로 생애와 저술이라는 축을 정리하여 다음 연구를 위한 예비적 성격을 지닌 글로 평가할 수 있다.²⁾

기존의 연구를 통해 볼 때, 심재 김석익에 대해서 많은 연구자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아직도 그에 관한 연구는 개괄적인 소개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필자가 아쉽게 생각하는 점은 어떤 한 분야에 있어 본격적이면서도 심도있는 연구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는 심재의 문학은 물론 史學이나 사상 등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몇 가지 원인이 있지만, 지역학에 대한 관심부족과 이로 인한 연구자들의 부족이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필사본으로 된 한문문헌이라는 장벽 역시 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심재 김석익의 詩文으로 연구범위를 한정하여 그의 시문학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즉 심재 김석익의 시문학 양상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 그의 문학적 좌표를 고민하는 것이 본고의

1) 『탐라문헌집』, 제주도교육위원회, 신일인쇄사, 1979.

『제주속의 탐라』, 김석익 저, 오문복 외 역, 보고서, 2011.

『탐라기년』, 홍기표 외 역, 제주문화원, 2015.

2) 『구한말 한 지식인의 일생-심재 김석익』, 국립제주박물관, 통천문화사, 2004.
김새미오, 「심재 김석익의 삶과 저술에 대한 일고」, 영주어문31, 2015.

목적이다.

『心齋集』에는 그의 시문학에 관해 참고할만한 자료들이 많다. 먼저 『心齋集』은 크게 심재 자신의 글과 심재가 차록한 글로 나눌 수 있다. 심재 자신의 글은 『心齋集』 1권에 집중적으로 수록되어 있고, 시와 산문으로 나눌 수 있다. 문집에 실린 심재의 시는 총 87제 99수이다. 시집 첫 부분에는 따로 소제목이 없지만, 중간에 14제 17수를 따로 「心齋散稿」의 제목으로 분리하였다. 「心齋散稿」는 심재가 함경도 지역을 여행하고 지은 부분을 따로 이름붙인 것이다. 여기에 최근에 제주시청 건립을 축하하는 읍시 4편이 발견되어³⁾ 총 88제 103수가 확인된다. 「心齋散稿」를 제외한 시의 내용은 挽詩가 비교적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

심재가 편집한 「槿域詩話」·「海上逸史·下」·「雜同散異」 역시 시에 관해 주목할 사항들이 많다. 「槿域詩話」는 삼국시대에서 일제강점기까지의 우리나라 작가들의 시를 약 300편 가량 소개하고 이에 대한 간략한 평을 실고 있다. 「海上逸史·下」에서는 제주 형승이나 제주의 官廨등을 소개하면서, 여기에 전해지는 유명한 시를 기록하였다. 「雜同散異」에서는 한국 고전시가와 한시 명구 등을 뽑아놓은 구절이 눈에 띈다. 또한 향가·고려가요 등 한국고전시가를 기록하기도 하였다. 이 밖에 「破閑錄·上」, 「破閑錄·下」등의 저작에서 부분적으로 시에 관한 논술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 저작 대부분은 시작품의 배경과 작가에 대해 기록하면

3) 새로 확인된 심재의 시는 문집에 없기 때문에 논고에 수록한다. 본래 심재선생의 아들인 김계연님이 소장하고 있었던 것이었고, 이를 제주지역 한학자인 오문복님을 통해 확인하였다.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祝濟州道廳新建」. “崢嶸薨巒屹然成, 新築南州赫赫名. 非但人工誇壯麗, 若言地勢亦通明. 平臨異蹟毛興穴, 下壓古都王子城. 誰識邦家經始意, 長風破浪鎮邊情. 翼然飛閣接天城, 粉壁丹甍各柵名. 允矣人工奪造化, 偉乎邦策通神明. 雲空霧散新開域, 岳崎川停自作城. 盛代如今事興滯, 務推仁恕結民情. 大會官民宴落成, 盛筵此日愧無名. 山河未必論夷險, 天地何曾忘晦明. 漢業自從除苦法, 秦皇無賴防胡城. 如今佇待蒼生望, 和雨煦風宣化情. 屹然高閣突然成, 建築近來最有名. 翠壁蒼松迥超越, 丹壁彩堞亦鮮明. 天空野闊別開局, 山盡水回自作城. 況復邦家撫綏策, 不煩民力結人情.”

서, 자신의 관점을 제시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형식적으로는 모두 차록체라고 할 수 있다.

심재는 주변 문인들과 문학 활동을 같이한 자취가 남아있다. 문집 중에는 大阪詩社와 瀛州吟社의 명칭이 그것이다. 대관시사는 심재가 대관으로 피난했을 때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영주음사인 경우는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고, 주변지인들이 많이 참여했던 것으로 보인다.⁴⁾

본고는 다음의 순서로 진행하겠다. 먼저 그의 문학관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어 심재 시의 양상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심재 시문학의 의미를 정리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다. 이를 통해 심재 시문학의 특징과 양상을 살피고, 그의 문학적 좌표를 고민해보도록 하겠다. 또한 이를 통해 심재에 대해 보다 깊은 연구가 진행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II. 심재 김석익의 문학관

심재가 문학에 관한 기록이 적지 않지만, 문학론만을 집중적으로 다룬 글은 그다지 많지 않다. 그가 차록을 위주로 했기 때문이다. 심재의 문학관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문학과 작가와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 다음 인용문은 「避礙散稿序」의 일부이다.

4) 대관음사의 명칭은 「爲金達所挽赴大阪吟社. 甲戌七月」에 보인다. 이 시기 시사까지 찾아던 것을 보면, 심재가 대관에서 지은 시가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문집 내에서 몇 작품을 빼고는 거의 확인할 수 없다.

영주음사에 대해서는 별다른 기록은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와 교류했던 인물을 추적하면서 영주음사와 깊은 연관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 예로 부해 안병택 문하의 金勻培는 해방 후에 영주음사의 社長을 지내기도 한다. 그렇지만, 심재가 직접 참여하여 영주음사 시사활동을 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가 참여하지 않은 직접적인 이유는 확인되지 않는다. 추정해보자면, 창립당시 일제의 통제에 있는 단체라는 점이 가장 컸던 것으로 보인다. 영주음사는 지금도 제주도내 한시모임으로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내 일찍이 문장은 사람의 말 중에서도 정미로운 것이라고 논하였다. 하지만 말이 반드시 그 마음이었다 할 수 없고, 반드시 행적이 실질적이었다고도 할 수 없다. 한나라의 사마상여·양자운, 당나라의 유자후, 송나라의 왕안석의 무리는 그 말이 문장에 펼쳐져 의론 할 수는 없지만, 행적의 실정을 살펴보면 숨길 수 없는 것이 있다. 비유하자면 백정이 불상에 예배하고 광대가 예기를 읽는 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하지 않은 적이 없다. 근본을 따져보면 백정이나 광대임을 어떻게 숨길 수 있겠는가?)

『避礙散稿』는 구한말 제주 지식인이었던 金滢植(1886-1927)의 시문집이다. 김형식의 본관은 김해이고, 자는 淵叟, 子澄, 호는 避礙 또는 革菴이다. 문집은 번역도 되어 있다. 그는 당시 제주에서 시와 문장으로 두각을 나타내었던 인물이었다. 그리고 일제시대 저명한 논술가였던 金明植과도 친형제사이였다. 이들 형제는 모두 부해 안병택의 제자였다.⁶⁾ 심재가 부해 안병택의 고제였음을 감안하면, 매우 절친했던 관계였을 것으로 보인다.

인용문에서 심재는 문학에 대해 “사람의 말 중에서도 정미로운 것”으로 정의하면서도 “마음”과 “행동”을 문학보다 먼저 생각해야 할 요건으로 제시하였다. 심재가 거론한 사마상여, 양웅, 유종원, 왕안석은 모두 당대 뿐만 아니라 중국을 대표하는 문인이라고 할 수 있다. 문학적 성과만으로 논했을 때 그 누구도 의의를 제기할 수 없는 인물들이다. 하지만 심재는 이들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만을 한 것은 아니었다. 그 이유는 그 평가기준이 문학이 아닌 사람에 있었기 때문이다.

사마상여는 과부가 된 부잣집 딸 卓文君을 만나 그녀를 유혹하여 함께 도망친 행적이 있고, 양웅은 왕망의 신나라에서 벼슬했었다. 유종원은 당과싸움에 연루된 바 있고, 왕안석은 신법을 주장하여 당시 백성들

5) 『心齋集』, 「避礙散稿序」. 吾嘗論文章, 人言之精者也. 然未必皆其心也, 未必皆其行事之實也. 漢之司馬相如楊子雲, 唐之柳子厚, 宋王安石之倫, 其言之布于文者, 無得以議, 夷考其行事之實, 有不掩焉. 譬之屠兒禮佛, 倡家讀禮, 未嘗不外視之似也. 本之, 則屠與倡焉, 其可以相掩乎哉.

6) 이들 형제가 부해의 제자였다는 것은 『農隱文集』에서 확인된다.

이 큰 고통을 받았다는 인물평이 있다. 심재는 이들에 대해 개인처신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 그 상태에서 문학적인 재주만 앞세웠다고 생각한 것이었다. 이에 심재는 이들의 문학에 대해 “백정이나 광대가 불상에 절하고 예기를 읽는 것”이라고 신랄한 비판하였다.

심재는 인용문에 이어서 “내 친구는 어려서 재주를 꽃피워 그 나아감이 끝이 없었고, 忠憤慷慨한 뜻이 우뚝하고 환히 드러나 바라보면 가릴 수 없는 빛이 있고, 부딪쳐도 범할 수 없는 창끝이 있다. 꾀꾀하고 간절하여 行事의 실적에는 한갓 말로 그칠지 않았으니, 그 마음에 근본하여 문장으로 드러난 것을 이에 따라 알 수 있다. 앞으로의 빼어난 겨울 동백꽃과 같이 되는 날을 기약하며 기다릴 것이다.”라고 하였다.⁷⁾ 즉, 심재는 문장과 행동이 일치했던 김형식의 삶에 주목했고, 그의 처신이 심재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 일치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심재에게 인간은 문학보다 선행되어야 할 문제였기 때문이다.

심재가 작가의 행적에 주목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문학이 지식인 자신의 잘못된 출처를 가릴 수 없다는 것을 직시한 것이었다. 이런 기준의 이면에는 일제라는 당시 시대상황으로 많은 지식인들의 추악한 모습을 눈앞에서 지켜보았기 때문이다. 둘째, 문학이 예술장르이기 때문에 예술적 재능으로 사람이 망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에 심재는 문학 창작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⁸⁾ 심재의 이런 인식은 기본적으로 기존 지식인의 출처에 기준을 두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심재의 이런 인식은 그의 시 작품에서도 그대로 확인된다.

심재는 시를 보는 입장에 있어 중국시와 한국시를 분명히 구별하였고, 바라보는 시각 역시 차별성을 갖는다. 먼저 중국시에 대해서는 시의

7) 『心齋集』, 「避礙散稿序」. 吾友早年, 才華其進未艾, 而忠憤慷慨之意, 磊磊然烈烈然, 望之有不可掩之光輝, 觸之有不可犯之鋒鋦, 凜凜懇懇乎行事之實, 而不徒以言而已. 則其根於心者, 著於文辭, 從可知, 而前頭之挺然大冬柏, 亦將期日而蒞矣. 有德者, 必有言, 詎不信? 然吾友其益勉旃哉. 吾友姓金氏子澄其字避礙其自號也. 時哉柔兆執徐三月日.

8) 『心齋集』, 「槿域詩話」. 243면. 鄭知常 條.

형성과 변화과정에 주목하였다. 심재는 시대에 따른 중국시의 변화를 “시경-초사체-서한 오언체·칠언체-위진행각잡체-영명시율체”로 보았다. 이후 심재는 만당시기에는 李商隱의 시에 주목하였고, 송대의 시에 대해서는 “모두 산문으로 시를 짓고, 議論으로 시를 해석하였다”고 하면서도 소식과 황정건의 시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보였다. 明·靑대의 시에 대해서는 “淸新秀朗하여 자못 사람들의 눈을 놀라게 하는 곳이 있다. 하지만 元氣가 쇠약하다”라고 평가하였다.⁹⁾¹⁰⁾ 변화의 원인은 작가의 性情으로 정리하였다.

시체에 있어서는 근체시에 관심이 많았고, 특히 성당시에 집중하였다. 심재의 시에 역시 절구와 율시가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다. 초학자들에게는 이백보다는 두보를 배울 것을 추천하였다. 이는 두보가 유가적 사상을 가지고 있어 더 많은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¹¹⁾

중국시에 대한 심재의 시각은 기본적으로 기존의 것과 크게 다르지는 않다. 그럼에도 심재가 이렇게 정리한 것은 기존의 것을 나름의 관점으로 정리해서 후대에 전하기 위해서였다. 성당시 중에서 두보에 집중한 것 역시 조선시대의 유교사상을 의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심재는 한국 시에 대해서는 인물중심으로 전개하였다. 심재는 우리나라 시의 연원을 「麥秀歌」로 보고, 이후 변화를 거치다가 최치원에 이르러 시문학 체계가 완성되었다고 보았다. 이는 한시의 체제를 말한다.¹²⁾

9) 『心齋集』, 「槿域詩話·緒言」: 三代以後, 風雅頌既亡, 而一變爲楚辭體, 二變爲西漢五七言體, 三變爲魏晉行歌雜體, 四變爲永明詩律體, 皆因時代變遷, 詩體隨以變動, 而亦因作者之性情有差異也. …중략… 及至盛唐, 文運勃興, 有旭日中天之觀. 於是大詩人輩出, 和鳴鏗鏘, 諸體大成. 斯謂詩之最盛時代, 而其中李白·杜甫斯二人, 特出時期之詩聖也. 然李詩不無才高難學之感, 則學唐詩者, 宜取杜詩之實際用心也.

10) 『心齋集』, 「槿域詩話·緒言」.

11) 『心齋集』, 「雜全散異」. 381면.

12) 『心齋集』, 「槿域詩話·緒言」. 我東漢詩之發端, 始於箕子之麥秀歌. 其後如四郡時代公無渡河歌, 高句麗初期黃鳥詩之類, 皆備漢詩之風韻. 至高句麗末期乙支文德之贈字仲文詩, 新羅中葉眞德女主之織錦詩, 詩之體裁完全. 及至新羅末期

심재는 이후 이규보, 이제현, 이숭인 등 몇몇 고려문인들을 거론하고, 조선시대의 문인을 소개하였다. 심재는 조선시대 문인으로 金宗直, 朴闇, 李荇, 崔慶昌, 白光勳, 李達, 許{竹封}, 蘭雪軒, 崔豈, 車天輅, 李好閔, 權鞞, 柳夢寅, 金尙憲, 李德懋, 柳得恭, 朴齊家, 李書九, 申緯, 姜瑋, 金澤榮, 黃玟까지 거론하였다. 물론 「근역시화」에서는 보다 많은 작가를 섬세하게 소개하였다.

심재의 이런 서술은 시의 형식적 완성은 중국이지만, 우리나라 역시 문학적으로 뛰어난 성과를 나타내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雜全散異」에서는 한국고전시가인 「처용가», 「백결선생가」(김종직), 「어제하여가」(태종), 「단심가」(정몽주)등도 기록하여, 문학전반에 대한 심재의 관심을 읽을 수 있다.

보다 주목되는 것은 제주 문학에 대한 기록이다. 먼저 「잡동산이」에서 여러 명구를 적는 부분에서 제주를 대표하는 시인 梅溪 李漢鎭에 대해 특기한 바 있다.¹³⁾ 한국을 대표하는 여러 시인들 중에서 제주의 시인을 기재했다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를 갖는 대목이다. 「해상일사」에서는 제주에 유배왔던 인물들의 시, 관리들의 시를 중심으로 기록했는데, 이 역시 제주를 중심에 두고 문학기록을 써내려간 것이었다. 「탐라인물고」에서는 제주도 인물을 소개하면서 중간 중간에 제주문인들의 시를 소개하였다. 심재의 「탐라지」에서는 제주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시를 곳곳에 첨가하고 있다.

심재가 이렇게 제주에 관한 기록을 집중적으로 기록했던 이유를 본인이 직접 밝혀놓지는 않았다. 제주사람인 심재에게 제주를 기록한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제주 사람으로 심재처럼 제주문인들을 기록한 것은 기존 어느 문헌에서도 확인되지 않는 것이며, 이는 보이지 않는 심재만의 문학적 가치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崔致遠詩之諸體大備, 遂爲東方文學之元祖.

13) 『心齋集』, 「雜全散異」, 383면.

Ⅲ. 심재 김석익의 시문학 양상

1. 제주 지식인에 대한 기억

심재 김석익의 시에서 확인되는 첫 번째 특징은 제주 사람에 대한 세밀한 기억들이다. 문집에서 輓詩류가 적지 않다는 것도 그 한 양상이다. 심재의 저작 중 하나인 「耽羅人物考」에서 그는 고려시대에서 근대에 이르는 제주도 인물까지 꼼꼼히 정리한 바도 있다. 그만큼 심재는 제주도 인물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조선시대 제주 지식인들은 일정한 학맥이 있었다기보다는 주로 유배인들에게 배워 이들과 교류를 갖는 방식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인물들을 만나기 힘들었다. 뿐만 아니라 문헌이 부족한 관계로 제주 지식인간의 계승관계를 확인하는 것도 녹록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심재의 경우는 부해 안병택을 통해서 노사학맥을 접했다. 이 시기 노사학맥 외에 간재 전우학맥을 찾아간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본토에서 두 학파 간에는 교류가 빈번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제주도인 경우는 좁은 지역, 많지 않았던 지식인들이 계속 접촉할 수 있었다. 심재는 제주도에서 노사학맥을 계승하는 인물이었고, 제주라는 지역적 특색으로 타학맥과의 인물과도 허물없이 교류하였고, 그는 이런 기억을 하나하나 시로 풀어내었다.

다음 시는 심재가 노사학맥의 인물인 高士訓(1871-1909)을 기억하면서 쓴 시이다.

惟公性癖世無雙	세상에 둘도 없는 공의 성품
驅馬秋風幾渡江	가을 바람에 말 달리며 몇 번이나 강을 건넜나
篤志壯心今不死	독실한 의지 장한 마음 지금도 죽지 않아
牛犁泉下水相撞	牛犁泉아래 물은 맞부딪치는데
好學如流人笑狂	물 흐르듯 배우길 좋아해 사람들 미치광이라 놀려도

誰知感慨噴天潢 누가 알았을까? 분한 마음 天潢에 뽐을 줄
 義聲未集身先倒 의로운 외침 모이지 않았건만 몸이 먼저 거꾸러져
 長使後人枉斷腸 뒷 사람들 부질없이 길이 애닳게하네¹⁴⁾

고사훈은 구한말 제주의 의병장이다. 그의 자는 景志, 호는 樵狂였고, 高龜訓, 高仕訓, 高承天의 이름으로도 알려져 있다. 그는 30세경 제주해협을 건너 부해 안병택을 찾아가 배웠다. 이때 안병택을 통해 송사 기우만을 만났다. 송사 기우만은 전라도 지역에서 의병항쟁을 전개한 바 있는 유학자였다. 또 고귀훈은 항일의병장이었던 奇參衍과 같은 인물과 교류를 맺었다.¹⁵⁾ 이후 고사훈은 1909년 2월에 제주에서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하였다. 이때 심재의 형인 金錫允(1887-1949), 金萬石(1885-1909) 등과 함께 거사를 일으켰다. 이에 앞서 심재 역시 송사 기우만의 격문을 가지고 제주에 들어온 바 있었다. 이들의 스승이었던 부해 안병택은 고사훈에게 보낸 시에서, “부자의 정으로 그대를 천리 밖에 보내었네”라고 하며, 걱정하는 마음을 전하면서, “멀리 있어도 광양의 넓고 빈 땅에, 해마다 심어 숲이 되길 거듭 부탁하고 있겠지”¹⁶⁾라고 하여, 거사의 성공을 바랐다. 하지만 거사에 실패하였고, 고사훈은 일제경찰에 붙잡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만다. 이 사건은 일제 강점기 제주지역에서 있었던 최초의 무장투쟁이라는 의미를 갖는 역사적인 사건이었다.¹⁷⁾

고사훈과 심재는 부해 안병택의 문하에 있었다. 부해 안병택이 송사

14) 『心齋集』, 「憶高樵狂景志」.

15) 제주인물의 삶에 대해서는 김찬흡의 연구를 참조한 바 크다. 이후 인물 소개 역시 동일하다.

16) 『부해문집1』, 「寄贈高斯文景志」. “復海重山杳枳城, 秋風回首意難平. 未忘去歲秋風日, 千里送君父子情; 果否誰誰愛柏深, 當年移植想先心. 遙知廣壤多閒地, 煩囑年年種作林.”

17) 이 항쟁으로 1977년 사라봉 모충사를 건립하고, 의병항쟁기념탑을 세웠다. 또 고사훈 등은 건국포장을 추서하였고, 1990년에는 건국훈장이 추서되었다. 1997년에는 제주변전소에서 제주제일중학교에 이르는 길을 承天路라고 명명하였다.

기우만의 고제였던 것을 생각하면, 이들은 모두 제주에서 노사학과를 계승하고 있는 제주의 지식인이었고, 매우 친밀한 관계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인용문에서 심재는 고사훈의 항일정신을 기리고 있다. 첫 번째 시에서 심재는 고사훈의 항일의지를 두 번째 시에서는 추모하는 마음을 담았다. 첫 번째 시의 전반부에서는 고사훈의 뛰어난 성품과 스승을 찾아다녔던 모습을 그렸다. 후반부의 “독실한 의지”, “장한 마음”으로 항쟁을 펼쳤던 고사훈의 마음을 형상화하였다. 牛犁泉은 제주시 광양 지역에 있던 속칭 물동지역으로 이 지역에서 항쟁을 준비했다고 전해지는 장소이다. 심재는 “물이 서로 맞부딪친다”는 표현으로 몸은 떠났지만, 격정적인 정신을 지녔던 고사훈의 삶을 기억하였다. 두 번째 시의 전반부에서는 배움을 좋아했던 고사훈의 모습을 그렸다. 미치광이란 표현은 심재의 「高龜訓傳」에는 책에 미쳐, 나무하면서도 독서를 하는 그의 모습에서 비롯한 것이었다.¹⁸⁾ 그리고 ‘狂’의 이면에는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뜻이 남달랐던 고사훈의 모습을 읽을 수 있다.

다음 시는 고경수에게 보내는 시인데, 심재가 고경수의 아버지인 高錫九(1854-1939)의 시에 차운하여 지은 작품이다.

澹然一屋足容身	조용한 집 몸을 가누기에 충분하고
中有閒翁出俗塵	그 속의 한가한 노인 속세를 벗어났네
風號短壁歲將暮	바람은 짧은 벽에 울부짖고 한해가 저물려는데
雪滿空庭居亦貧	눈은 빈 뜰에 가득한 청빈한 거처라네
清心不變寒兼熱	맑은 마음 변함없이 냉정과 열정 겸했으니
勁節肯分秋與春	굳은 절개 봄 가을을 나눌 수 있을까
況是鳳毛長百尺	하물며 鳳毛같은 상투 길이 백척이니
大東異日又斯人	우리나라에 다른 날 또 이런 사람 있을까 ¹⁹⁾

18) 『心齋集』, 「高龜訓傳」. 高龜訓, 初名士訓, 字景志, 耽羅人也. 爲人堅忍朴素, 外寬內栗, 確乎有不可奪之志. 常恨以早孤失學, 嘗負笈官司, 以求讀書, 人或譏以書狂, 而間嘗採樵以取學資, 故亦號以樵狂, 而皆不恤也.

19) 『心齋集』, 「謹次高翁柏窩韻寄景洙胤君. 戊午」.

高錫九는 호가 柏窩 또는 慕松齋이다. 그는 제주 오라리 출신으로 일제에 불복하여 평생 한복을 입으며 살았다고 한다. 또한 일제의 물건은 쓰지 않았고, 세금도 내지 않아 일제의 고초를 받았다고 전한다. 그는 李應鎬등과 함께 集義契를 결성하고, 오라동 연미마을의 망곡단에 ‘조선의 수치를 설욕하겠다’는 뜻으로 ‘朝雪臺’를 바위에 새겨 그 결의를 다졌다고 한다.

그의 아들 高景洙(1898-1983)는 호 文淵, 文齋이며, 제주 오라동 李應鎬의 문하에서 배웠고, 계화도에서 田愚(1841-1922)에게 학문을 배웠다. 그는 일관되게 외세사상을 배격하고 민족자존을 지키는 삶을 살았다고 알려져 있다. 그는 또한 1916년 오라동 사평에서 李信鎬가 沙坪塾이라는 한문서당을 개설했을 때 훈장으로 초빙되었고, 1925년까지 철저한 민족 교육을 실시하였다. 해방 후에도 1978년 대한광복의사비 비문을 짓고 조설대비를 건립하여 민족의식을 고취시켰던 인물이었다. 그는 또한 영주 음사 회원으로 한시에 능숙하였다.

이들과 심재는 집의계의 일원이었고, 조설대를 중심으로 깊은 교감을 갖는 관계였다. 조설대는 제주 오라 지역의 조그마한 바위산으로 국상이 낮을 때 북향사배하던 望暎터였다. 이들은 을사조약 때 이곳을 조설대라고 이름하고 구국의 맹세를 다졌다. 조설대는 일제에 항거했던 제주지식인들의 상징적인 장소였다.

인용문의 시는 고석구의 인품을 추모하는 마음을 아들인 고경수에게 전하고 있다. 전반부는 검약했던 삶과 시끄러운 세상에서도 청빈한 삶을 지켰던 풍모를 그렸다. 후반부에서는 맑은 마음으로 냉철하면서도 열정적으로 살았던 고석구의 삶을 돌아보았다. 특히 상투를 통해 민족자존을 고민했던 고석구의 모습을 강하게 형상화하였다.

주지하듯 심재는 노사학맥의 인물로 분류된다. 고석구와 고경수는 간재학맥으로 분류될 수 있는 인물이다. 학맥이 다름에도 이렇게 밀접하게 만날 수 있었던 것은 학파는 달랐지만, 항일이라는 공통된 기치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심재는 후학에 기억에 대해서도 소중하게 간직하였다. 다음 시는 심재가 姜昌輔(1902-1944)를 추도하며 쓴 3수 중 첫 번째 시이다.

一朵名花照棘籬	감옥을 비춘 한 가지 아름다운 꽃
歲寒不與衆芳萎	세한 절개를 지녀 못 꽃처럼 시들지는 않지
如何造物多猜忌	어찌하여 조물주는 이리도 시샘하여
故遣狂風吹折枝	일부러 미친 바람 불어 가지를 꺾었는지 ²⁰⁾

심재가 후학을 기른 시간은 길지 않았다. 1916년, 심재나이 32세 때에 제주성내 관덕정 근처의 月臺에 살았는데, 이때 宋斗玉(1850-1922)이 주관했던 서당에서 몇 년간 후학을 키워낸 것이 확인된다. 이후에 후학을 지도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문헌으로 확인되지는 않는다. 이 시기 심재는 姜昌輔(1902-1945), 韓相立, 金澤洙(1901-?), 金正舜, 金正魯(1907-?), 高敬欽(1910-?), 朴景勳(1909-?), 洪淳億(1908-1989)등을 키워냈고, 이들은 모두 항일운동의 이력을 가지고 있다. 이들 중 강창보, 김택수, 김정노, 김정순, 고경흠은 공산주의 사상을 지향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다. 박경훈은 초대 제주도지사를 지낸 바 있는데도, 좌익분자로 몰려 고생한 바 있다.

이 시에는 부제로 “姜君은 일찍이 사상혐의로 인해 당국에 여러 차례 체포되었다. 이로 인해 해외로 10여년간 망명하였다. 임오년(1942) 다시 잡혀 옥에 갇힌 뒤 갑신년(1944) 겨울 끝내는 대전 옥중에서 죽고 말았다.”라고 되어 있다.

姜昌輔는 심재 문하에서 수학한 대표적인 인물이었다. 그는 1921년 제주도 최초의 진보청년단체인에서 반역자구락부를 조직한 바 있고, 1925년에는 宋鍾炫·金澤銖 등과 함께 新人會를 결성하여 활동하다 일제에 구속되었다. 이후 조선공산당에 가입하여 송중현·김택수·張鍾植·吳大進·金正魯·尹錫沅 등과 함께 항일 투쟁을 전개하다 구속되었다. 1931년에 다시 조선공산당 재건운동을 하였고, 1932년에 제주해녀항쟁 때에

20) 『心齋集』, 「追悼姜君昌輔. 三首」. 姜君嘗以思想嫌疑, 被逮當局者再三. 因亡命在外, 凡十年. 癸壬午還收繫獄, 甲申冬竟死於大田獄中.

는 조선공산당 제주도 공산주의자협의회 책임자로 일제에 검거되었는데, 탈옥하여 일본으로 밀항을 한다. 일본에서 다시 일본노동조합협의회에서 노동운동을 전개하였고, 1943년 국내로 잠입하려다가 검거되어 7년형을 선고받고 대전형무소에서 복역 중 1945년 1월 옥사하였다. 강창보는 “항일”이라는 단어를 빼고 설명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시는 세 수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시에서 끝없이 이어지는 일제의 탄압을, 두 번째 시에서는 강창보의 사상을 논하였다.²¹⁾ 이어지는 세 번째 시가 인용문의 시이다. 인용문에서 심재는 강창보의 절개를 칭송하고,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있다. 심재가 바라본 그의 절개는 물론 일제에 항거했던 그의 정신을 말한다.

2. 함경도 유람과 역사회고

제주 인물에 대한 기억과 함께, 심재 김석익의 시에서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는 역사적 현장을 지나면서 느끼는 회고의 감정이라고 할 수 있다. 심재는 제주도에서 출생했지만, 전라도·함경도는 물론 일본까지 돌아보았다. 이런 그의 역정은 기존 제주지식인에게서는 보기 힘든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심재가 돌아본 모든 곳에서 시를 남긴 것은 아니지만, 넓은 견문을 통해서 자신의 감정을 담담하게 서술하고 있다. 특히 함경도 지역을 유람하고 나서는 「心齋散稿」라고 따로 명명하여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였다. 심재는 함경도를 돌아보면서 처음 느끼는 북방의 풍습 등에도 많은 관심을 가졌지만²²⁾, 전반적인 관심은 역사회고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은 심재가 함경도의 三防谷을 지나면서 쓴 시이다.

21) 『心齋集』, 「追悼姜君昌輔. 三首」. 滿天淫雨已支離, 捲地穽風更可悲. 莫道陽春回復日, 風風雨雨也無涯; 國民主義兩三歧, 曰是曰非摠不知. 欲問斯人人不見, 臨門悵悵亦奚爲.

22) 『心齋集』, 「偶題」; 『心齋集』 「過富寧郡, 有感…」; 『心齋集』 「北俗居不接隣, 田頭起莊…」.

形勝山河衝	형승은 산과 물이 부딪치는
關防東北路	동북쪽의 관문
當年據扼早爲備	그때 험한 곳을 잡고 미리 대비했다면
那許清曾任長驅	어찌 가등청정이 길길이 달릴 수 있었을까
可知天險非足恃	하늘의 내린 험함은 믿을만한 것이 아니라
成敗只在人調度	성패는 그저 사람이 조절하고 헤아리는데 달린 것
君不見	그대 보지 못했던가
鄒人孟軻固國論	추나라 사람 孟軻의 固國論을
固國不以山谿隔	나라를 굳건히 하는 것은 산과 계곡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又不見	또 보지 못했던가
西河傲氣修德戒	드높은 기세의 吳起가 덕을 닦으라 했던 경계를
若不修德舟中敵	덕을 닦지 않는다면 배 안 사람들이 모두 적이라 했었지 ²³⁾

삼방곡은 함경도의 골짜기 이름이다. 중종 25년(1530)때 발간된 『신증 동국여지승람』에는 三防에 대해 “上·中·下 삼방이 있는데, 이 셋길로 長谷을 경유해서 바로 分水嶺을 통하며, 옛날에 세 곳 방을 설치한 땅에 는 골짜기 형세가 칼로 깎아지른 듯 손가락같이 벌려 있고 또 물이 깊어 낭떠러지에 따라 겨우 서울 가는 捷路만이 통한다.”라고 되어 있다. 『정조실록』에는 “삼방곡(三防谷)은 …중략… 1백 40리의 긴 골짜기이며, 國師堂에 옛 성터가 있는데 이것을 一防이라 하고, 국사당에서 북으로 10여 리 떨어진 木防谷에 또 성을 쌓은 곳이 있는데 이것을 二防이라 하고, 목방곡에서 10여 리 떨어진 곳에 또 성터가 있는데 이것을 三防이라 한다.”²⁴⁾ 이 두 사료에 따르면 삼방곡은 매우 험준한 산세로 이어져 있는 큰 골짜기로, 그야말로 천애의 군사요지인 것으로 보인다.

이 시에는 “옛날 宣廟 임진왜란 때에 清正이 이 길을 통해 통과했다고 한다. 느낌이 있어 기록한다.”라는 부제가 달려있다. 청정은 임진왜란 때 일본군장수였던 加藤清正을 말한다.

이 시는 ‘君不見’을 기준으로 나눌 수 있다. 전반부는 임진란 당시 삼

23) 『心齋集』, 「過三防谷」. 奧在宣廟龍蛇之役 清正由此路通過云云 有感而志之.

24) 『신증동국여지승람』 제49권, 安邊都護府; 『정조실록』 11년, 정미, 9월29일조.

방곡이라는 천애요새를 잘 지키고 있었다면, ‘적장인 가등청정이 어떻게 이곳을 내달릴 수 있겠는가’ 하는 내용이다. 심재는 이 곳에서 하늘이 내린 험한 지형을 믿을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를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달렸는가를 고민한 것이다. 그의 고민은 후반부에서 孟軻와 西河의 말을 통해 다시 표현된다.

맹가는 맹자이며, 그의 固國論은 「공손추하」의 “天時不如地利, 地利不如人和”의 내용이다. 사람의 화합이 하늘과 땅보다 나라를 강하게 한다는 내용이다. 西河는 서하태수를 지냈던 吳起를 말한다. 오기는 魏文侯에 이어 魏武侯를 모셨는데, 무후가 견고한 산하를 위나라의 보배라고 하자, “덕에 있는 것이지, 험준함에 있지는 않다”라고 하였다. 이어 오기는 무후에게 덕을 닦지 않는다면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적이 된다고 한 바 있다. 시에서는 이 내용을 그대로 풀어내고 있다.

심재는 험준한 삼방곡에서 임진왜란 때 적국의 장수 가등청정이 지났던 것을 생각하면서, 나라를 잃어버린 작금의 현실을 돌아보고 있다. 심재가 말하고 싶은 것은 간명하다. 이 험준한 산하가 나라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협심과 군신간의 화합으로 나라를 지켜야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심재 당시의 상황은 어떠한가? 그때 그 시절의 환란을 잊어버리고 살다가 결국 나라를 잃은 처지가 되어 버리고 만 것이다.

이런 각성과 회한의 목소리는 다음 시에서도 확인된다.

勢急下城亦無奈	형세가 급하여 항복하는 것은 역시 어쩔 수 없다 해도
何須備責議從權	어찌 방비하는 책임을 임시로 의논하고 따르단 말인가
令人最是傷心事	사람들이 가장 마음 아파하는 일은
忍恥忘讎尙幾年	부끄러움을 참으며 원수까지 잊은 지 몇 해인지 ²⁵⁾

인용문은 심재가 南漢山城을 지나며 지은 시이다. 심재가 이곳을 지나게 된 것은 함경도 지역을 돌아보고 내려오는 도중에 들르게 되었다. 남한산성은 주지하듯 조선 인종이 청태종에게 항전했지만, 결국 항복을

25) 『心齋集』, 「過南漢山城」.

했던 장소이다. 조선으로서는 오랑캐라고 무시했던 존재에게 무릎을 꿇은 굴욕의 역사현장이었다.

이 시는 모두 3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시에서는 요새와 같은 산성이지만, 운용을 잘하지 못했던 金塗와 같은 조정신하들을 비판하였다. 이는 김류의 아들인 金慶徵이 강화도 방어에 실패하여 인조가 항복하게 된 한 이유가 되었기 때문이다. 둘째 수에서는 桐溪와 淸陰과 같이 의기를 지켰던 대신들을 들어, 그나마 이들과 같은 호기로운 선비들이 있어 조선의 명맥을 지킬 수 있었다고 설파하였다. 심재가 동계, 청음을 거론한 이면에는 일제에 망한 지금은 과연 누가 있었는지를 물어보는 것이다.²⁶⁾

이어진 세 번째 시가 인용문이다. 이 시에서는 당시에 어쩔 수 없이 항복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해도, 이후 원수마저 잊어버린 후대의 상황을 개탄하고 있다. 병자호란 당시 철저히 반성하고 대비했다면 ‘지금처럼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는 것만은 막을 수 있지 않았겠는가’ 하는 것이 심재의 의중이다. 즉, 심재는 오랑캐라고 여겼던 여진족에게 굴욕적인 경험을 했음에도 다시 왜놈이라 칭했던 일본에게 나라가 망하는 상황에 이른 작금의 상황이 심재로서는 견디기 힘들었던 것이었다. 심재는 「잡동산이」에서도 삼전도의 사적을 특기하고 있는데, 이 역시 이런 의식이 반영으로 보인다.²⁷⁾

다음의 시 역시 함경도 안변의 釋王寺를 지나면서 지은 시이다.

昔聞釋王勝	전에 釋王寺의 경승을 들었는데
今過釋王前	지금 釋王寺 앞을 지나네
釋王寺中何所有	釋王寺 안에 무엇이 있나
猶存太祖手種松	아직도 태조가 손수 심은 소나무가 있는데

26) 『心齋集』, 「過南漢山城」. 天作山城開保障, 屹然東北一關防. 當年不守君知否, 體府元非錦繡腸. 【體府指金塗. 時爲都體察使, 不善調度也.】 ; 桐溪別腹憤悲激, 淸老裂書義氣豪. 天降大人爰有爲, 不然亂賊跡相交.

27) 『心齋集』, 「雜全散異」 406면.

枯死已過六十年	고사한지 이미 60년
又有藥泉	또 약수 샘이 있어
湧出石磯邊	돌 계곡 사이 시내가에 솟아나는데
一飲能解百病纏	한 번 마시면 병에 묶인 병을 풀어낼 수 있다네
願將此泉	원컨대 이 샘물을
流出東方三百州	동방 삼백 고을에 흘러보내
醫我蒼生萬二千	우리 만 이천 蒼生들을 낫게 했으면 ²⁸⁾

석왕사는 안변도호부에 있는 절로 태조 이성계가 潛邸때 세운 절이다. 이 절은 이성계가 불타는 건물에서 서까래 3개를 들고 나오는 꿈을 꾸었는데, 이를 무학이 왕이 될 것이라고 해석했다고 전해지는 곳이다.²⁹⁾ 이 시에는 부제로 “내가 북쪽에서 돌아오는 길에 절 앞에 이르렀고, 이에 수레에서 내려 절로 들어갔다. 느낌이 있어 시를 짓는다.”고 되어 있다.

석왕사에서 심재가 처음으로 본 것은 석왕사의 소나무였다. 소나무는 추위를 견디며 푸르름을 지키는 지조의 상징이다. 그리고 석왕사의 소나무는 조선을 세운 태조 이성계가 심은 것이었다. 그런데 심재가 석왕사에서 본 소나무는 이미 말라 죽은 지 60년이나 된 상태였다. 심재가 보기에 이 소나무는 쇠락하여 일제에 망해버린 조선과 닮았었다. 심재는 이 소나무를 통해 정말 답답할 수 밖에 없는 일제의 현실을 다시 읽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답답한 상황에서 심재는 병을 해결해준다는 석왕사의 샘물을 통해 희망을 보고자 한다. 시 마지막 부분에서 이 샘물을 흘러보내 2000만 동포를 낫게 하고 싶다는 것은 일제의 학정에 신음하는 당시 민초들에 대한 심재의 애정이며, 동시에 조선의 망했어도 현실은 그대로 조선 사람으로 살아가는 朝鮮遺民으로서의 한 절규를 느끼게 한다.

28) 『心齋集』, 「釋王寺」. 寺在安邊郡, 余自北回路, 路出寺前. 故遂下車入寺, 有感而作歌.

29) 『신증동국여지승람』 제49권, 安邊都護府.

IV. 맺음말

심재 김석익은 구한말에서 해방 전후의 폭풍같은 시기를 겪은 제주의 지식인이었다. 그는 제주도에서 태어났지만, 전라도 장성에 있는 부해안병택을 찾아가 배웠고, 함경도를 돌아보았고, 한때 논산지역에 살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일본까지 왕래한 바 있다. 이런 삶의 역정은 이전 제주도 문인들에게서는 찾아보기 힘든 모습이며, 그의 문학에는 이런 그의 삶이 그대로 녹아 있다.

그의 문학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작가의 처신과 문학의 관계에서 작가의 문제에 보다 주목했다는 점이다. 문학과 작가의 처신의 문제는 고금을 꿰뚫는 주제라고 할 수 있다. 심재가 이런 면을 다시 세밀하게 바라본 것은 그가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지식인의 변절을 수도 없이 보았기 때문이었다. 둘째, 중국시와 한국시를 분리해서 인식하고 있었다. 중국시에 대해서 심재는 한시의 형성과정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한국시에 대해서는 인물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이는 비록 나라가 망했지만, 조선이 문화적으로 훌륭한 나라였음을 후세에 전하려는 의도로 판단하였다. 한중 문학관에 관한 제반 사항은 기존문헌과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제주문헌에서는 처음 확인되는 사항이다. 보다 주목할 만한 사항은 제주도 시문에 관한 제반 기록이다. 심재가 이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특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제주도에도 문학적 가치를 두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주도 문학기록을 포함한 제주기록 전반에 대해서는 인식적으로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심재 김석익의 시문학은 “돌아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본고에서는 심재의 시에 대해 사람과 공간의 두 가지 축으로 정리하였다. 그의 시에 드러나는 양상은 항일의지로 집약할 수 있었다.

심재가 집중한 인물은 일제강점기라는 민족적 수난기에도 자신만의 지조를 지키며 항일운동에 매진했던 인물이었다. 본고에서 살핀 고사훈

인 경우는 노사학맥의 인물이었고, 고경수는 간재학맥의 인물이었다. 또한 심재는 강창보와 같은 후배 인물들에 대해서도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이들은 모두 일제강점기 민족해방을 위해 헌신했던 인물이었다.

주목되는 점은 제주도 지식인들의 교유양상이었다. 본토인 경우 노사학맥과 간재학맥이 제주도처럼 친밀하게 교유한 흔적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제주도라는 지역적 특색에 기인한다. 조선말까지 제주도는 지역주민이 마음대로 제주도를 벗어나지 못했다. 따라서 이때 제주도 지식인은 유배인들을 중심으로 구성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다가 바닷길이 풀리면서 본토로 공부하러 간 인물들이 나타났는데, 이들은 주로 노사학맥과 간재학맥을 찾아가 배웠다. 이들은 제주도라는 지역적 특색과 본토에서 공부했다는 의식이 함께하여 같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둘째, 부해 안병택의 존재이다. 부해 안병택은 조선말 '노사 기정진-송사 기우만'의 학맥을 계승한 학자인데, 본래 제주도 조천 출신이었다. 부해 안병택은 제주도를 떠나 전라도 장성, 광주, 목포 지역 등에서 거처하였다. 당시 제주로 오는 배가 모두 전라도 지역을 통과했는데, 당시 거의 모든 제주도 지식인이 부해 안병택을 만났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안병택이 노사학맥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어서 간재학맥과 만났던 기록도 확인된다. 이에 제주도 내에서 두 학맥이 서로 어울릴 수 있는 심리적 거리를 좁혔다고 할 수 있다.

심재에게 배웠던 인물들이 대부분 항일 의식을 가졌지만, 어떤 양상을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이들이 전해지는 글이 거의 확인되지 않는 점도 있지만, 사회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당시 제주도 지식인의 형성과 교유양상 및 심재 후배학자들의 동향에 대해서는 보다 세밀한 연구가 이어져야하는 부분이다. 그리고 인물에 대한 관심은 심재의 문학과관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심재 김석익이 주로 활동했던 시기는 조선이 쇠락하면서 일제의 무단

통치가 이어진 시기였다. 아이러니하게도 제주도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시기 제주도는 폐쇄적인 공간에서 열린 공간으로 바뀌는 때였다. 즉, 기존의 있던 해상 출입 조치가 느슨해지다가 후에는 완전히 사라진 때였다. 심재가 함경도 지역을 여행하고 기록한 「심재산고」는 이런 양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심재산고」에 표현된 심재의 공간의식은 일제강점기라는 상황과 맞물려 지속적으로 민족자존에 괴로워하고, 백성들의 고통을 해결할 수 없을까 하는 고민의 연속이었다. 이는 ‘송사 기우만-부해안병택’으로 이어지는 노사학맥의 항일의식을 단편적으로 읽을 수 있고, 시대의 지식인으로서의 모습까지도 표현된 부분이었다.

이런 제반 사항은 제주 지식인의 문학 공간 확대라고 할 수 있다. 기존의 경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제주도를 벗어나는 문학작품을 확인하기 어렵다. 하지만 심재의 시대에는 문학적 공간이 확대되고, 제주도 민에게는 새로운 영역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된다. 이 시기 본토는 물론 일본으로 진출하는 인물들이 대거 등장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본고는 심재의 문학에 대해 분석해보았다. 이외에도 심재에 관해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앞으로 심재는 물론 제주도에 관해 심도있고 발전된 연구가 지속되어, 심재와 그 시대를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하는 바이다.

<참고 문헌>

- 『심재집』 1·2, 제주문화, 행문회, 1990.
- 『노사집』, 한국문집총간, 310.
- 『송사집』, 한국문집총간, 345.
- 『탐라기년』, 김석익 저, 영주서관, 1918.
- 『부해문집』 1·2·3·4, 안병택 저, 오문복 역, 제주문화원.
- 『백수여음』, 김경종 저, 백규상역, 북제주문화원, 2006.
- 『탐라문헌집』, 제주도교육위원회, 신일인쇄사, 1979.
- 『제주속의 탐라』, 김석익 저, 오문복 외 역, 보고사, 2011.
- 『탐라기년』, 김석익 저, 홍기표외 역, 제주문화원, 2015.
- 『제주풍아』, 오문복 편역, 제주문화총서31, 제주문화. 2004.
- 『구한말 한 지식인의 일생-심재 김석익』, 국립제주박물관, 통천문화사, 2004.
- 김봉옥, 『증보 제주통사』, 도서출판 세림. 2000.
- 김찬흠, 『20세기 제주 인명사전』, 제주문화원, 2000.
- 김새미오, 「일제 변경봉 문집에 나타난 18~19세기의 제주사회 성격에 관한 일고—유교사회로의 변화 양상을 중심으로」, 『영주어문』 20, 2010. pp.93~118
- 김새미오, 「구한말 제주 문인 부해 안병택의 삶과 교섭」, 『韓國漢文學研究』 53, 2014. pp.249-274
- 김새미오, 「제주유배시사 橘會연구」, 『韓國漢文學研究』 57, 2015. pp.477-499
- 김새미오, 「부해 안병택의 문학관과 한시 소고」, 『영주어문』 29, 2015, pp.137-162
- 김새미오, 「심재 김석익의 삶과 저술에 대한 일고」, 『영주어문』 31, 2015. pp.203-229
- 김새미오, 「소백 안달삼의 교유와 그 의미」, 『탐라문화』 51, 2016. pp.249-274.
- 서중석 외, 『제주 4.3연구』, 역사비평사, 1999.
- 염인호, 「일제하 제주지역 사회주의자들의 민족해방운동」, 민족지평. 1990.

Abstract

A Study on the Poem Literature of Shimjae Kim Seok-Ik / Kim, Saemio

This paper analyzes the poem literature of Shimjae Kim Seok-Ik (1885-1956), an intellectual who was born in Jeju Island in the late 19th century of Korea when the country was doomed to be taken over by Japanese power. Shimjae was born in Jeju but he moved extensively during his lifetime. He visited Ahn Byung-Taek in Changseong, Jeon-ra Province in order to learn from him; and further travelled the areas of Hamgyung-Do (the north part of Korea) and Japan as well. The extensive movement for academic and travel causes through the life course was unique to him, which was not found in the previous generations of Jeju Island born intellectuals. And his literature works all present such life trajectory that is full of adventure.

Shimjae's poem literature tells us the following points. Firstly, as for writers' attitudes to life and literature, *Shimjae* highlighted more the former than the latter. Secondly, *Shimjae* perceived Chinese poems and Korean poems as a separate, independent unit. As for Chinese poems, he focused upon its process to be formed; whereas as for Korean poems, poets are the main focus. It is supposed that by considering Chinese and Korean poems separately and leaving the legacies of Chosun's poems behind, *Shimjae* was intended to get the next generations to know that Chosun was a great country with cultural heritage despite its perish to be gone under Japanese rule. Again, with that very act of perceiving Chinese and Korean poems as a separate unit, he paved the way to establish the basis upon which the literature records of Jeju-do were able to be arranged into a coherent form.

The key idea presented in the poem literature of *Shimjae* Kim-Seok Ik is

* kimsaemio@hanmail.net / Dep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Jeju Nat'l Univ.

“reflection”. This paper studied *Shimjae*'s poems with the two key words of people and places. The main idea that is presented in his poems is fighting spirit against Japanese Occupation. The people that *Shimjae* paid attention to are those who persisted one's fighting spirit during the period of the Occupation (1910-1945) and carried on an independence movement against it. *Shimjae* expressed his emotions by travelling around the region of Hamgyung-do. Jeju-do turned to be an open space from a closed one during Japanese Occupation, which allowed him to travel further to the mainland out of Jeju.

The poems of *Shimjae* suggest that he continued pondering with a bitter feeling over the independence of nation; and over how to overcome the painful lives of ordinary people in Korea. This shows us that the struggling, fighting consciousness against Japanese rule comes all through the *Nasa* literature school that includes *Songsu* Ki Woo-Man and *Boobae* Ahn Byoung-Taek. Also, this indicates that those intellectuals did not turn around from the social issues that face their generations.

This paper tried to analyze the literature of *Shimjae* in a great detail. Further studies that research not only *Shimjae* but also Jeju-do are expected to come forward in order to reach to the deepen and better understanding of them.

Key words: *Shimjae* Kim Seok-Ik, *Boobae* Ahn-Byoung Taek, Jeju-Do, Hamgyung-Do.